

# TURBULENT TIMES

## THE STATE OF BACKPACKING AND SEASONAL FARM WORK IN AUSTRALIA

PRELIMINARY REPORT  
JANUARY 2023

### EXECUTIVE SUMMARY

## 격동의 시대: 호주의 배낭여행과 계절 농작업 현황

### 경영진의 요약 보고

이민자들은 호주 농업 노동력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들은 지방의 사회-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농업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된다. 계절 농작업의 대부분을 하는 두 가지 주요 비자 범주인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WHM) "배낭여행자" 프로그램과 태평양 제도 출신 근로자를 위해 새롭게 통합된 태평양-호주 노동 이동성 제도(PALM)는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확장되었다. 비자 신분 때문에 "임시"로만 여겨지는 이 사람들은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지방의 지역 사회에서 거주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호주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농업 의존도에 균열이 있음을 드러냈다. 여행 및 비자 지연, 보건 제한 조치 및 바이러스 발병에 대한 우려와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은 이주 농장 노동자들을 맞고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격동의 몇 년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언론과 뉴스에서 대규모 노동력 부족, 밭에서 썩는 과일, 도움을 요청하는 농부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지만, 이주 노동자들을 지방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2022년 정부의 인센티브는 제한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호주에 남아 있는 임시 비자 소지자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태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호주의 국경이 2022년 2월에 다시 완전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 노동자들, 특히 WHM 비자를 받은 노동자들의 귀환은 예상보다 더 더뎠다.

이 보고서는 호주의 계절 농장 노동자들의 미래에 대한 연구의 예비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퀸즐랜드에서 원예업에 종사하는 배낭여행자와 태평양 도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이주 농장 근로자들을 맞고 지원하는 일에 직접 관여하는 산업, 정부 및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의 44번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통찰력과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이 프로젝트는 그리피스 대학의 카야 배리 박사가 주도하는 것으로, 호주 정부가 3년간 호주 연구 위원회 초기 경력 연구자 상(프로젝트 번호 DE220100394)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이주 농장 노동자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이 직면한 염려와 과제 세 가지가 대두된다.

1)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폐쇄와 보건 제한 조치로 인한 혼란. 팬데믹 동안 발병을 억제하고 예방하며, 격리를 선동하고,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지역 사회의 태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교훈을 주고 미래의 재난과 보건 위기에 대한 제안을 제공한다.

2) 이주 농장 노동자들의 경험에서 숙박 제공자들의 역할은 간과되었다. "워킹 호스텔"은 계절적 고용주와 잠재적 근로자 사이의 주요 도관으로, 비자 프로그램의 확장과 함께 그 수와 규모가 증가했다. 공동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촉진하는 데 있어 고유한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있다.

3) 배낭여행자에서 태평양 도서 노동자로의 신분 이동으로 인해 지방 지역 사회에서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연구 결과는 태평양 지역 주도의 정보 및 지원 서비스와 근로자와 지역 사회 간의 문화 인식 및 소통 개선의 시급한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향후 연구가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영역을 제시하지만, 이주 농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향후 계획 및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간의 고유한 도전과 관점도 조명한다.